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인 9장 1-2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아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먼저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세우고 난 후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는 화려하지도 않고 크기도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규모이지마는 이 성전을 다시 지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힘을 키워서 올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독립운동이나 귀환운동을 해서 돌아 올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 지금 읽어드렸던 1-2절의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포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그 주변에 살던 여러 이방 민족들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살았다는 의미인데 그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증한 일" 즉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하는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 민족의 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할 때에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할 뿐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들에게도 이방 신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과 싸워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다가 앗수르와 바벨론에 차례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증한 일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우매함은 하나님 앞에서 똑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의 본성이 그만큼 끈질기다는 의미이고 죄인 된 우리의 본성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전심을 다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닌 것을 쫓아 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에스라가 이 모든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명명백백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도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이 몇몇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함께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자복할 때에 백성들도 함께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람 자손 중 스가냐라는 사람이 찾아와 에스라에게 이러한 백성들의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나 아직까지 그래도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이방 여인들과 그들의 소생들을 돌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에스라는 이러한 계획을 백성들에게 공포하였고 백성들도 이방 여인들과 그들의 소생을 돌려보냄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계속해서 이방여인과의 혼인 관계를 유지함으로 우상을 계속 섬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에스라의 말을 따라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한 사람들을 조사하여 기

록함으로 이방여인들과 그들의 소생들을 돌려보내기로 한 계획을 실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가 바벨론에게 패망함으로 그대로 이루어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유대로 돌아온 그 남은 후손들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모두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생을 얻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